

大方廣佛華嚴經에 기입된 한국의 角筆符號口訣과 일본의 訓點에 대한 비교연구*

尹幸舜**

目次

1. 머리말
 2. 韓日 大方廣佛華嚴經의 加點本
 3. 한국의 點吐口訣과 일본의 コト点的 형태
 4. 文字口訣의 有無
 5. 漢文讀法에서의 加點 方法
 6. 맺음말
-

1. 머리말

2000년 7월에 일본의 漢文訓讀法 연구의 권위자인 小林芳規 일행과 함께 한국의 漢文資料에 나타나는 角筆點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佛典資料에서 角筆符號口訣에 의해 한문을 訓讀한 획기적인 국어사적 사실이 발견되었다. 현재까지 角筆符號口訣의 기입이 확인된 자료는 11세기 전반기의 初雕大藏經 판본으로 추정되는 「瑜迦師地論」 卷第三·卷第五·卷第八의 3卷,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초로 추정되는 판본으로서, 再雕大藏經의 底本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周本「大方廣佛華嚴經」 卷第六·卷第二十二·卷第三十一·卷第三十四·卷第三十六·卷第五十七의 六卷, 9세기에서 10세기의 판본으로 추정되는 晉本「大方廣佛華嚴經」 卷第二十의 一卷, 11세기에서 12세기로 추정되는 판본으로서 「妙法蓮華經」 卷第一의 一卷으로 모두 11권의 佛典資料이다.¹⁾

이번에 한국에서 발견된 角筆符號口訣은 일본의 오코토點(コト點) 등과 같은 기능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41-A00402).

** 한밭대학교 부교수 일본어학

1) 李丞宰(2000) 「새로 발견된 각필부호구결과 그 의의」 『새생활국어』 제0 권 제 호, 국립국어연구원. 135~152쪽

南豊鉉(2000)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書誌學報』 제24 호, 韓國書誌學會. 5~45쪽

南豊鉉·李丞宰·尹幸舜(2001) 「韓國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訓點語と 訓點資料』 제 107집, 訓點語學會. 1~58쪽

南豊鉉(2002) 「高麗時代 角筆點吐 釋讀口訣의 種類와 그 解讀 - 晉本華嚴經 卷20의 點吐釋讀口訣을 중심으로 -」 『朝鮮學報』 第183輯, 朝鮮語學會. 1~22쪽

小林芳規·西村浩宇(2001) 「韓國遺存의 角筆文獻調査報告」 『訓點語と 訓點資料』 제 107輯, 訓點語學會. 36~68頁

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원 한문의 문장을 자국어로 읽기 위해서 해당 한자에 다양한 부호가 기입된 위치에 따라서 그 讀法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漢文訓讀法은 이제까지 日本의 한문훈독에서만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독법은 日本이 獨自적으로 考案하여, 發達시킨 漢文訓讀의 表記法이라고 알려져 왔다.²⁾ 그러나 한문독법에 사용된 角筆符號口訣이 일본의 오코토點 등과 동일한 방법으로 韓國의 9세기에서 12세기로 추정되는 판본의 佛典資料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또한 이러한 角筆符號口訣이 漢文을 韓國語로 읽기 위한 표기수단으로서 사용되었다는 점은 이제까지 정설로서 일본의 漢文訓讀에 사용된 오코토點이 일본이 독창적으로 고안하여 발달시킨 한문훈독법이라고 주장되어 왔던 사실을 뒤집는 획기적인 국어사적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³⁾ 즉 이것은 韓·日兩國의 漢文讀法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며, 더 나아가서는 漢字文化史나 國語史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게 될 것이다. 특히 중세이전의 자료가 부족한 한국어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단히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誠庵古書博物館藏 周本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卷第二十二·卷第三十六·卷第五十七의 四卷에 기입된 角筆符號口訣과 일본의 石山寺本大方廣佛華嚴經의 古訓點本과를 비교하여 동일한 자료에서 나타나는 한일양국의 한문독법의 차이점을 밝히고, 그 특징을 考察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화엄경과 일본의 화엄경과의 비교자료가 加點年代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자료에서의 한문독법에 대한 연구는 兩國의 국어사의 語法이나 문장의 표현뿐만 아니라 한자문화사 및 文字史 등에 유익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2. 韓日 大方廣佛華嚴經의 加點本

2.1 韓國의 角筆符號口訣點本

誠庵古書博物館藏 周本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卷第二十二·卷第三十六·卷第五十七의 四卷은 木板卷子本으로 이 중에서 卷第六과 卷第三十六은 國寶 204호와 203호로 지정된 귀중한 자료이다. 周本大方廣佛華嚴經은 再雕大藏經의 底本으로 契丹本의 불경과 行의 字數가 17字 등으로 일치하는 점에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판본의 간행시기는 11세기말에 印出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 周本大方廣佛華嚴經의 紙質은 楮紙로 識語는 없으며, 1張은 24行 17字의 체재로 되어 있으며, 角筆符號口訣의 기입은 판본이 引出된 시기에서 멀지 않은 12세기초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⁵⁾

2) 中田祝夫(1954)『古點本の國語學的研究 總論篇』講談社. 183~184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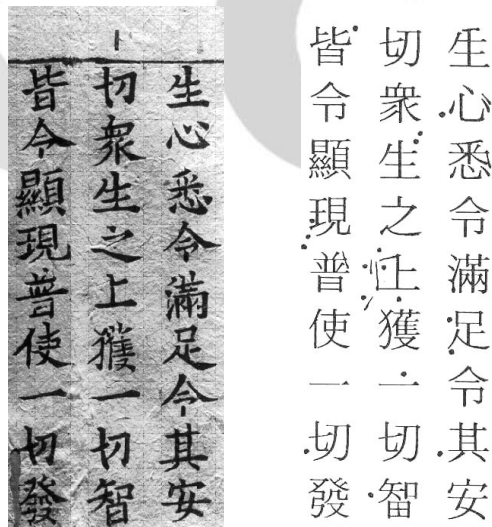
石塚晴通(1993)「中國周邊諸民族に於ける漢文の訓讀」『訓點語と訓點資料』第90輯, 訓點語學會. 1~7頁

3) 吉田金彦·築島裕 外編(2001)「總論」『角筆』『訓點語辭典』東京堂出版. 3頁, 89頁

4) 千惠鳳(1985)『國寶12 - 書藝·典籍』藝耕産業社. 273~275쪽

5) 尹幸舜 외(2003)『韓國角筆符號口訣資料와 日本訓點資料 연구 -華嚴經資料를 중심으로-』태학사. 41~154쪽

아래에 제시한 예와 같이 角筆符號口訣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點과 線을 이용하여 角筆點의 부호에 의해서만 全卷의 한문내용을 상세하게 읽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이 자료들의 기입도구로 사용된 각필도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의 훈점자료에서 사용된 각필도구의 예를 보면, 끝이 뾰족한 상아나 대나무 같은 딱딱한 도구에 의해서 紙面에 자국을 내어 문자나 부호를 기입하고 있다. 角筆用具의 사용은 毛筆에 의한 朱墨白點 등으로 기록할 때보다 原本資料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또한 모필을 사용할 때처럼 먹을 갈아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속기용의 기록이나 일시적인 메모 등에 편리한 利點이 있다. 또한 얼른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기입자만이 알 수 있는 개인의 메모나 비망록 등을 작성할 때에도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최근에 들어서야 각필점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었듯이 학문의 傳受에 필요한 후대의 학습자나 연구자의 주목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卷第二十二 13張;18~20 行의 일부분)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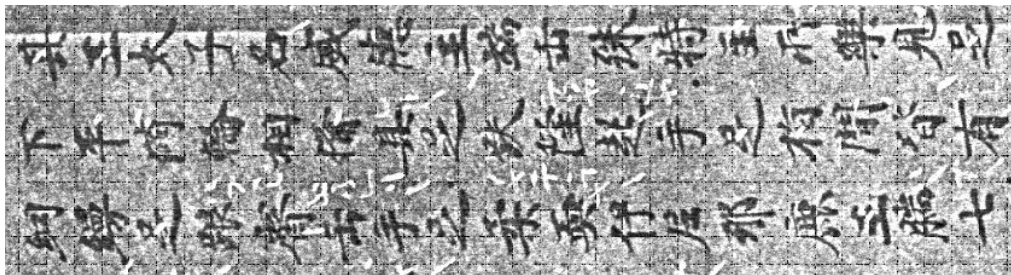
2.2 日本의 毛筆白点本

일본의 京都의 石山寺에 전해지고 있는 華嚴經은 新譯華嚴經八十卷本으로 七十八卷이 [石山寺一切經]으로서 전해지고 있다. 이 중 五十七卷이 8, 9세기의 書寫本으로 毛

6) 각필로 기입된 다양한 부호는 인쇄에서 잘 보이지 않은 점 때문에 편의상 상기의 사진 원문의 移點本도 함께 게재한다.

筆에 의한 白點이 全卷에 걸쳐서 3종류의 訓點이 상세히 加點되어 있다. 제1차점은 卷第四十七~卷第五十의 四卷으로 加點年代는 天長年間(824~834)이며, 제2차점은 卷第二十一~卷第三十一, 卷第三十三, 卷第三十五~卷第四十二, 卷第六十四~卷第七十八, 卷第八十의 三十六卷으로 加點年代는 貞觀경(860경)이며, 제3차점은 卷第四十三, 卷第四十六, 卷第五十一~卷第六十三의 十五卷으로 加點年代는 제2차점과 동일한 시기로 추정되고 있다. 모두 9세기 중기 전후로 해서 加點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관독이 용이한 訓點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제2차점으로 제1차점과 제3차점은 白點의 胡粉이 떨어져나가 判讀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비교대상은 제2차점의 자료가 중심이 된다.⁷⁾

石山寺華嚴經은 天明年間(1781-1789)경에 卷子本에서 折帖本으로 改裝되어 전해지고 있으며, 紙質은 麻紙로 識語가 보이지 않는다. 古寫本의 형태는 1張은 29行 17字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문에는 則天文字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아래에 제시한 예와 같이 한국화엄경과는 다르게 일본화엄경의 훈점은 오코토점과 仮名점을 함께 사용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훈독을 하고 있다.



其の王の太子を威徳主(と)名(つけ)キ。端正殊特にして、人に見ム(と)樂(は)所^トキ。足の下平に滿てり。輸相備に具(は)レリキ。足の^{高也立也}隆^ト起(て)りキ。手足の指の間には、皆網纒有(り)キ。足の^{フタカ}跟齊一正(と)ト(と)ノ(ほ)レリキ。手足柔^{ハキ}爽なりキ。伊尼^{ハキ}邪鹿王の^{ハキ}^{ハキ}鼻^{ハキ}ありキ。(卷第七十五 7張26~28行)⁸⁾

3. 한국의 點吐口訣과 일본의 ヲコト點의 형태

3.1 韓國華嚴經의 點吐口訣

7) 築島裕(1978) 『石山寺經藏の古訓點について』 『石山寺の研究 一切經篇一』 法藏館. 923~926頁

大坪併治(1992) 『大方廣佛華嚴經古點の國語學的研究』 風間書房. 4~5頁

築島裕(1996) 『平安時代訓點本論考 研究篇』 汲古書院. 84~87頁

8) 예시 자료는 大坪併治(1992) 『大方廣佛華嚴經古點の國語學的研究』에 제시된 口繪의 일부분이며, 한문훈독문은 370~371頁에 의한다. 한문훈독문에서의 표기 방법으로 원문의 오코토점은 片仮名, 傍訓은 片仮名, 補讀은 ()로 표기한다.

한국의 점토구결은 일본의 오코토점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한자를 정방형으로 상정해서, 부호의 형태와 기입하는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나타내는 음절과 문법적인 요소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한국의 점토구결의 單點圖의 예를 들면 「·」의 星點을 한자의 좌변하단에 기입하면 목적격 「乙(-을/를)」, 「·」의 星點을 한자의 중앙에 기입하면 주제보조사 「ㄱ(-은/는)」을 나타낸다. 또한 「·」의 星點을 한자의 우변상단에 기입하면 소유격 「ㄷ(-스/의)」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한국 화엄경의 점토구결의 형태는 「· · · : · · · - | / \ | · · | ㄷ ㄱ / · / \ · ! i · · - 」 등과 같이 나타나는데, 點과 線을 이용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점토구결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單點을 기본으로 하여 雙點의 각 방향의 형태, 線點의 각 방향의 형태, 點과 線을 조합한 여러 형태는 일본의 오코토점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점토구결이 點과 線을 이용해서 일본의 오코토점보다 매우 다양하고 조밀하게 기입되어 있는 것은 각필이라는 기입도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일본의 오코토점보다 매우 체계적이고 계산된 형태를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점토구결의 형태가 한글의 天地人의 제작원리와 같다는 주목할 만한 주장이 보고되기도 하였다.⁹⁾

한국의 점토구결이 일본의 오코토점보다 매우 다양하고 조밀하게 기입되어 있는 것은 각필이라는 기입도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일본의 경우와 같이 毛筆에 의한 기입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밀한 위치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¹⁰⁾ 이러한 점과 함께 한국의 부호구결자료에서는 문자구결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까지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점토구결이 나타나는 위치는 매우 조밀하고 복잡하여 어떠한 메모나 點圖集이 없이 한문 해독이나 점토구결 기입의 학문활동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單點圖 11]

아래에 제시한 單點의 위치는 화엄경에 나타나는 위치로서, 한자를 정방형으로 상정한 공간의 내외의 25곳에 나타나고 있으며, 그 위치설정의 간격은 매우 조밀하다. 單點은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가 되며, 일반적으로 한문 해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助詞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들이다. 아래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단점도의 25곳에서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문법요소는 13곳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의 해독연구의 진전에 따라서 단점도의 위치설정의 數字와 문법요소가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9) 李丞宰(2001) 「符號字의 文字論的 意義」 『國語學』38, 國語學會. 89~116쪽

李丞宰(2002) 「符號의 字形과 制作 原理」 『문법과 텍스트』서울대출판부. 61~78쪽

10) 小林芳規(2002) 「韓國における角筆文獻の發見とその意義 -日本古訓點との關係-」 『朝鮮學報』第182輯, 朝鮮學會. 17頁

11) 李丞宰(2001) 「周本『華嚴經』卷第22의 角筆 符號口訣에 대하여」 『口訣研究』7, 口訣學會. 1~32쪽

李丞宰(2003) 「周本『華嚴經』卷第五十七의 書誌와 角筆 符號口訣에 대하여」 『韓國角筆符號口訣資料와 日本訓點資料 연구 -華嚴經資料를 중심으로-』태학사. 73~95쪽

박진호(2003) 「周本『華嚴經』卷第36 點吐口訣의 解讀 -字吐口訣과의 對應을 中心으로」 『口訣研究』11, 口訣學會. 211~247쪽

·	·	·	·	·
·	彡	·	支/	七
·	·	7	·	匕/矢
乙	·	彡	尸	m
·	分	十	·	l

[雙點圖]

아래에 제시한 쌍점의 형태는 화엄경에 나타나는 위치로서, 雙點의 형태로서는 垂直雙點(:)과 水平雙點(··), 斜線方向雙點(..:), 逆斜線方向雙點(:..)의 4種의 다양한 형태가 정방형의 邊을 중심으로 가점되어 있는데, 아마도 한자의 중앙에 쌍점의 기입은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형태들은 단점의 복합 형태로 보아야하는데, 위치에 따라서 별개의 단점이 우연이 쌍점의 형태로 된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문법요소인 문자로서의 해독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외에도 「:」나 「.:」와 같은 三點의 형태가 보이는데 쌍점과 단점의 복합인지 하나의 형태로 인정해야 할지도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연구의 진전에 따라서 정확한 위치와 형태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화엄경의 다양한 쌍점의 형태는 일본의 오코토점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11세기에 天台宗 延曆寺에서 주로 사용한 寶幢院點은 쌍점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오코토점과의 관련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線點圖]

아래에 제시한 線點의 형태는 화엄경에 나타나는 위치로서, 線點의 형태로서는 垂直線(|), 水平線(—), 斜線(/), 逆斜線(\)의 4種으로서 정방형의 邊과 中央에 加點되어 있다. 쌍점과 달리 한자의 중앙에 線點이 조밀하고 다양하게 가점된 것은 아마도 쌍점은 단점의 복합형태라는 점에서 단점과의 혼동을 초래하는 데 반해서 線點은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한자의 중앙과 다

12) 築島裕(1996) 『平安時代訓點本論考 研究篇』汲古書院. 650頁
 小林芳規(2002) 「韓國における角筆文獻の發見とその意義 -日本古訓點との關係-」『朝鮮學報』第 182輯, 朝鮮語學會. 1-82頁

양한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單點과 線點의 複合點]

아래에 제시한 複合點의 형태는 화엄경에 나타나는 위치로서, 點과 線을 이용한 복잡한 점토구결 형태로서 線의 上下나 左右의 중간지점에 (·) (· |) (· \) (/ ·)와 같은 형태로 직선방향과 사선방향의 8種의 복합부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4種의 線點 끝에 單點을 결합한 직선방향과 사선방향으로서 (!) (/)와 같은 복합부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화엄경에 이러한 형태가 모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한자의 중앙보다는 邊을 중심으로 가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복합형태에서 발생하는 혼동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복합형태는 단점과 선점의 독법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부호의 형태를 늘려 나아가도 「同一位置 同一末音」의 원칙을 가정하기도 한다.¹³⁾ 이와 같이 단순한 점과 선을 이용하여 형태의 다양화와 극대화로 만들어진 점토구결의 형태는 일본의 한문훈독의 오코토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방법이다.

13) 李丞宰(2003)「周本『華嚴經』卷第五十七의 書誌와 角筆符號口訣에 대하여」『韓國角筆符號口訣資料와 日本訓點資料 연구 -華嚴經資料를 중심으로-』태학사. 86쪽

ㄷ \ · · - ㄷ ! · \ · - / \ ·	· - · - ! \ · - - ! \ ·	· i !	/ · \ · ! · / / · / \	
· / · · -	!	I · · \ / ·	· ! · - · / · - · i	
· \ · - · · !	· / \ · - ·	- · i ! · - · -	- · i ! · - · -	
· · / · i \ · - !	\ · i \ · i	· - · \ ·	· · !	
· / / · - !	· \ · / · /	- · i · - \ · \ ! \ ·	· / ! ·	\ · / / \ ·

3.2 日本華嚴經의 오코토점과 假名點

일본의 오코토점은 한국의 점토구결과 마찬가지로 한자를 正方形으로 상정해서 字面に 직접적으로 四角의 귀퉁이, 四邊, 중앙 등에 星點이나 線點 등을 기입하며, 원칙적으로 한자와 떨어지지 않는다. 일본화엄경의 오코토점의 단점은 타원형의 형태이다. 이것은 白點의 毛筆로 가점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연적인 형태라고 생각된다. 아래에 제시한 단점도를 보면, 좌변 중앙에 기입하면 「ス」, 하변 중앙에 기입하면 「ク」, 우변중앙에 기입하면 「ニ」, 우변하단 모퉁이에 기입하면 「ハ」를 나타낸다.¹⁴⁾ 이러한 기입방법은 가나(假名)點을 기입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한문독법의 기입을 목적으로 한 실용적인 것이다.

일본의 오코토점의 형태는 「· - / \」와 같은 단점과 선점 이외에도 「ㄱ 0 乙」 등의 시각적인 형태의 부호도 사용하고 있다. 築島裕의 연구에서는 단점도의 좌변에 「テ · ニ · ハ」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에 의해서 石山寺華嚴經을 特殊點乙類로 분류하고 있는 초기 형태의 오코토점이다.¹⁵⁾ 일본의 오코토점에서 나타나는 단점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사각의 모퉁이와 4변이 중심이 되며, 정방형단점도 내부에는 1개에서 4개 정도의 위치가 설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7개에서 14개 이내로 위치가 설정되고 있다.¹⁶⁾ 따라서 일본의 훈점자료에 나타나는 단점도의 위치설정은 계통에 관계 없이 한국의 단점도보다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오코토점이 일반적으로 위치의 조밀도에서나 형태면에서 간단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래에 제시한

14) 제시한 오코토점도에는 「ハ」가 역사선 방향의 짧은 선 [\]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의 고사본에 나타나는 형태는 사선 방향 [/]의 짧은 선으로 나타난다.

15) 築島裕(1996) 『平安時代訓點本論考 研究篇』汲古書院. 329~330頁

16) 築島裕(1986) 『平安時代訓點本論考 ヲコト點 假名字體表』汲古書院. 89~761頁

는 점이 본 연구 대상인 화엄경과 다르다.¹⁹⁾ 아래에 제시한 예를 보면, 한국의 화엄경에서는 문자구결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부호인 점토구결만이 가점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일본의 화엄경에서는 ①「縷イトをもて織オリ成(な)せり」, ②「然タクに—香爐をもてせり」, ③「孤窮こきゆうにして困タシ(な)ク迫セハシ」 예와 같이 仮名문자로서 訓을 기입하고 있다. 즉 일본의 훈점자료에서는 명사나 형용사나 동사 등을 나타내는 문자의 가나(仮名)점과 조사나 조동사 등을 나타내는 부호의 오코토점을 사용하여 訓點 記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문자구결의 有無는 한문을 읽어내려 가는 데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의 이해와 독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의 화엄경에서 문자구결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앞으로의 규명할 문제이지만, 한문훈독에 있어서 점토구결과 오코토점의 표기법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한국의 화엄경에서의 부호구결인 점토구결의 언어의 역할은 일본의 오코토점보다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점토구결이 담당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호의 종류와 정방향 단점도에서의 조밀한 위치설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① 百 萬 億 金 藏 金 縷 織 成

(韓卷第二十二 4:13-14)

百 萬 億 金 藏 金 縷 織 成

(日卷第二十二 3:27-28)

② 然 百 萬 億 香 爐

(韓卷第二十二 4:6)

然 百 萬 億 香 爐

(日卷第二十二 3:23)

③ 此 諸 衆 生 受 如 是 苦 孤

窮 困 迫 (韓卷第三十六 9:22)

此 諸 衆 生 受 如 是 苦 孤
窮 困 迫

(日卷第三十六 8:12-13)

19) 尹幸舜 (2003)「漢文釋讀에 쓰여진 한국의 角筆符號口訣과 일본의 오코토點의 비교 -『瑜迦師地論』의 點吐口訣과 文字口訣을 중심으로-」『口訣研究』第10輯. 79~112쪽

5. 漢文讀法에서의 加點 方法

화엄경의 한문을 해독하는 데에 있어서 한국의 점토구결과 일본의 훈점의 加點 방법에 그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의 한문훈독은 逆讀을 받는 동사나 그에 상응하는 구성소에 오코토점이나 仮名문자를 기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점토구결에서 주목해야하는 점은 한문의 句節末에 점토구결을 몰아서 기입하는 방법이다. 즉 동사를 읽는 점토구결을 원칙적으로 문장의 마지막 구성소에 점토구결을 몰아서 가점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고려시대와 조선초기의 順讀口訣에 가까운 형식으로서, 順讀口訣의 발생은 墨書釋讀口訣에서 직접 발달한 것이 아니라 符號釋讀口訣에서 발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⁰⁾

아래에 제시한 예를 들어 보면 ①의 한국화엄경의 「生深信心」에서는 「生」의 동사에 가점되어야 할 점토구결이 「心」에 한꺼번에 나타나는데 반해서 일본화엄경의 「生深信心」에서는 「深(く)信心を生して」와 같이 「生」의 동사에 「して」의 특수부호를 가점하고 있다. ②의 한국화엄경의 「皆遙見佛」에서는 「見」의 동사에 가점되어야 할 점토구결이 「佛」에 한꺼번에 나타나며, 또한 「如對目前」에서는 「對」의 동사에 가점되어야 할 점토구결이 「前」에 가점되어 있다. 이에 비해서 일본화엄경의 「皆遙見佛」에서는 「佛を見(る)こと」와 같이 「見」의 동사에 「こと」의 오코토점을 가점하고 있으며, 또한 「如對目前」에서는 「目の前に對へ(る)が如く」와 같이 「對」의 동사에 「へ」의 仮名訓을 가점하고 있다. ③의 한국화엄경의 「不爲損惱」에서는 「不爲」의 동사를 부정하는 語句에 가점되어야 할 점토구결이 「惱」에 복잡하게 한꺼번에 나타나는데 반해서 일본화엄경의 「不爲損惱」에서는 「損惱を爲ナサらず」와 같이 「不爲」에 「なさず」의 훈점을 가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부호구결의 句節末의 加點 특징은 「瑜迦師地論」 등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며, 일본의 훈점자료에서는 볼 수 없는 방법이다. 이는 당시의 언어연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한문독법에 대한 발달과정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이 자료의 가치가 더욱더 중요시된다.

① 於佛所生深信心 (韓卷第二十二 11:5)

於佛所生深信心 (日卷第二十二 9:16)

② 皆遙見佛如對目前 (韓卷第二十二 10:13)

皆遙見佛如對目前 (日卷第二十二 8:28)

20) 南豊鉉(2000) 「高麗時代の 點吐口訣에 대하여」 『書誌學報』 24호, 韓國書誌學會, 32 ~33쪽

③ 但於衆生不爲損惱 (韓卷第三十六 11:20-21)

但於衆生, 不爲損惱, (日卷第三十六 10:2)

6. 맺음말

이상으로 2000년에 발견된 한국의 각필부호구결자료 중에서 誠庵古書博物館藏 周本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卷第二十二·卷第三十六·卷第五十七의 四卷에 기입된 角筆符號口訣과 일본의 石山寺本大方廣佛華嚴經의 古訓點本과를 비교하여 동일한 자료에서 나타나는 한일양국의 한문독법의 차이점을 밝히고,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考察하였다.

우선 한국의 화엄경은 한문을 해독하는 데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각필이라는 도구에 의해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點과 線의 부호에 의해서만 全卷의 한문내용을 상세하게 읽으며, 일본의 石山寺에 전해지고 있는 華嚴經은 白點에 의한 오코토점과 仮名점을 함께 사용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훈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점토구결은 일본의 오코토점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한자를 정방형으로 상정해서, 부호의 형태와 기입하는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나타내는 음절과 문법적인 요소가 다르며, 單點을 기본으로 하여 雙點의 각 방향의 형태, 線點의 각 방향의 형태, 點과 線을 조합한 복합 형태는 일본의 오코토점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오코토점의 형태는 단점과 선점 이외에도 「ㄱ 〇 乙」 등의 시각적인 형태의 부호도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仮名문자와 略符號 등을 함께 사용한다는 점에서 오코토점의 종류나 그 비중이 문자구결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한국의 점토구결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화엄경에서는 문자구결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부호인 점토구결만이 가점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일본의 화엄경에서는 仮名문자로서 訓을 기입하고 있다. 즉 일본의 훈점자료에서는 명사나 형용사나 동사 등을 나타내는 문자의 가나(仮名)점과 조사나 조동사 등을 나타내는 부호의 오코토점을 사용하여 訓點 記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문자의 有無는 한문을 읽어내려 가는 데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의 이해와 독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화엄경의 한문을 해독하는 데에 있어서 한국의 점토구결과 일본의 훈점의 加點 방법에 그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의 한문훈독은 逆讀을 받는 동사나 그에 상응하는 구성소에 오코토점이나 仮名문자를 기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점토구결에서 주목해야하는 점은 한문의 句節末에 점토구결을 몰아서 기입하는 방법이다. 즉 동사 등을 읽는 점토구결을 원칙적으로 문장의 마지막 구성소에 점토구결을 몰아서 가점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형태면에서 고찰한 양국의 화엄경에서의 독법은 일본의 훈점에 있어서의 오코토점과 한국의 점토구결과 유사한 점도 있는 반면에 매우 다른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앞

으로 한국의 각필부호구결의 해독의 진전에 따라서 한일양국의 한문독법에 사용된 점토구결과 훈점의 발달과정이 좀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參考文獻】

- 南豊鉉(2000) 「高麗時代の 點吐口訣에 대하여」 『書誌學報』第24號, 韓國書誌學會, 5~35쪽
- 南豊鉉·李丞宰·尹幸舜(2001) 「韓國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訓點語と訓點資料』第107輯, 訓點語學會, 1~58쪽
- 南豊鉉(2002) 「高麗時代 角筆點吐 釋讀口訣의 種類와 그 解讀 - 晉本華嚴經 卷20의 點吐釋讀口訣을 중심으로 -」 『朝鮮學報』第183輯, 朝鮮語學會, 1~22쪽
- 朴鎮浩(2003) 「周本『華嚴經』卷第三十六의 點吐口訣의 解讀 - 字吐口訣との對應を中心に -」 『口訣研究』第11輯, 口訣學會, 211~247쪽
- 尹幸舜(2003a) 「漢文釋讀에 쓰여진 한국의 角筆符號口訣과 일본의 오코토點의 비교 - 「瑜迦師地論」의 點吐口訣과 文字口訣을 중심으로 -」 『口訣研究』第10輯, 口訣學會, 79~112쪽
- 尹幸舜(2003b) 「韓國における口訣の發達と角筆符號口訣の研究狀況」 『日本語日本學研究』第5號, 日本語日本學研究會, 3~20쪽
- 李丞宰(2001) 「周本『華嚴經』卷第22의 角筆符號口訣에 대하여」 『口訣研究』第7輯, 口訣學會, 1~32쪽
- 李丞宰(2001) 「符號字의 文字論的 意義」 『國語學』38, 國語學會, 89~116쪽
- 李丞宰(2002) 「符號의 字形과 制作 原理」 『문법과 텍스트』서울대출판부, 61~78쪽
- 李丞宰(2003) 「周本『華嚴經』卷第五十七의 書誌と符號口訣について」 『한글』262, 한글학회, 215~246쪽
- 石塚晴通(1993) 「中國周辺諸民族に於ける漢文の訓讀」 『訓點語と訓點資料』第90輯, 訓點語學會, 1~7頁
- 大坪併治(1961) 『訓點語の研究』 風間書房, 4~25頁
- 小助川貞二(2001) 「加點稀薄な漢籍訓點資料における典據の問題」 『漢文古板本とその受容(訓讀)』, 일본 北海道大學workshop 發表論文集, 62~90頁
- 小林芳規·西村浩字(2001) 「韓國遺存의 角筆文獻調査報告」 『訓點語と訓點資料』제107輯, 訓點語學會, 36~68頁
- 小林芳規(2002) 「韓國의 角筆點과 日本의 古訓點의 關係」 『口訣研究』第8輯, 口訣學會, 50~76쪽
- 小林芳規(2002) 「韓國における角筆文獻の發見とその意義 - 日本古訓點との關係 -」 『朝鮮學報』第182輯, 朝鮮學會, 1~82頁
- 築島裕(1986) 『平安時代訓點本論考 ヲコト點 仮名字體表』 汲古書院, 89~761頁
- 築島裕(1996) 『平安時代訓點本論考 研究篇』 汲古書院, 329~330頁
- 中田祝夫(1954) 『古點本の國語學的研究 總論篇』 講談社, 183~184頁

本研究は2000年に発見された韓国の角筆符号口訣資料の中、誠庵古書博物館蔵の周本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卷第二十二・卷第三十六・卷第五十七의 四卷に加点されている角筆符號口訣と日本の石山寺本大方廣佛華嚴經の古訓點本とを比較検討を行って、同一の資料において現れる韓日兩國の漢文讀法の相違点を明らかにし、その特徴を次のように考察した。

韓國の華嚴經は漢文を肉眼では容易には判讀できない角筆という道具による非常に多様の形態の点と線の符號にのみよって、全卷の漢文を詳細に讀んでいる点であり、日本の石山寺に伝えられている華嚴經は、白點による仮名点とヲコと点によって詳細な訓讀を行っている点である。韓國の点吐口訣は日本のヲコと点と同様の方法によって、漢字を正方形に想定して、符號の形態と加点する相対的な位置によって現す音節と文法的な要素が異なることになっている。点吐口訣は單點を基本に雙點、線點、點と線を組み合わせた複合形態は日本のヲコと点とは非常に異なる点である。ヲコと点の形態は点と線以外にも「ㄱ 〇 乙」のように視覺的な符號も用いられている。

韓國の華嚴經では文字口訣が全然用いられず、符號の点吐口訣のみが加点されているのに対して日本の華嚴經では仮名文字によって傍訓を加点している。即ち、日本の訓點資料においては名詞、形容詞、動詞などを現す仮名点と助詞や助動詞などを現す符號のヲコと点を用いて訓點を加点するのが一般的であり、このような文字の有無は漢文を理解するのに大きな影響を与えらると思うのである。

華嚴經の漢文を解讀するのにおいて韓國の点吐口訣と日本の訓點의 加点方法の相違が指摘できる。日本の漢文訓讀は逆讀を受ける動詞やそれに相応する構成素にヲコと点か仮名を加点する方法が一般的である。しかし、韓國の点吐口訣では漢文の句節末に点吐口訣をまとめて加点する方法をとっているのが注目される。

兩國の華嚴經の形態面からの考察では、日本の訓點においてのヲコと点と韓國の点吐口訣との類似している面もあるのに対して、非常に異なる点もあることが指摘できると考えられる。これからの韓國の角筆符号口訣の解讀の進展によって、韓日兩國の漢文讀法に用いられた点吐口訣と訓點との發達過程がさらに明らかになると思うのである。

キーワード：角筆符號口訣・日本の訓點・點吐口訣・釋讀口訣・
文字口訣・華嚴經・漢文訓讀法

투 고 : 2004. 5. 31
1차 심사 : 2004. 6. 12
2차 심사 : 2004. 7. 3

住 所 : (305-320)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산16-1 한밭대학교 일본어과
電 話 : 042-821-1355
E-mail : hsyoon@hanbat.ac.kr